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4, Vol. 1, No. 1, 1-2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의 관계에서 인지변인과 부정적 대처방략의 매개효과

한 태 희[†]

고전초등학교

홍 상 황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밝히고, 이러한 변인들에 의한 매개경로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들에서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인지변인, 낮은 사회적 지지, 부정적 대처방략 변인과의 상관을 알아보고 단계적 회귀분석 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여러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초등학생 5~6학년에게 스트레스 질문지, 귀인양식, 지각된 자기유능감, 인지오류 및 내재화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지를 실시하여 54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스트레스, 인지오류와 낮은 자기유능감 및 소극적 대처는 내재화문제에 대해 49.5%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지변인과 소극적 대처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다양한 모형을 설정하여 그 적합도를 비교검증 하였다. 그 결과 소극적 대처와 인지변인은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작용을 하고, 아동이 경험한 스트레스는 인지오류와 유능감지각 수준을 낮추며 그 결과로서 소극적 대처방략을 선택하게 되면 내재화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 불안, 위축, 두려움, 신체화 증상 등과 같은 내재화문제를 겪고 있는 초등학생에게 인지변인과 부정적 대처방략을 탐색하여 이를 교정해 주는 교육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초등학생, 스트레스, 내재화문제, 인지변인, 대처방략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한태희, (667-863)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318, 고전초등학교
FAX : 055-882-5013, E-mail : han9812812@empal.com

현대의 초등학생들은 매우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만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 자극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적 성장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자원도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은 신체적, 심리적 구조가 활발히 형성되어 가는 발달과정을 거치고 있고, 학교나 또래집단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스트레스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매우 설명력있는 변인(DeLongis, Coyne, Dakof, Folkman & Lazarus, 1982)이고,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Compas, 1987; Holahan & Moos, 1987), 신체적 건강(한미현, 1996), 우울증(Rowlison & Felner, 1988), 무력감, 정서불안, 우울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김치영, 2003)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아동이 부적응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Compas & Fondacaro, 1988; 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를 다룬 최근의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개인에 따라서 성공적인 적응의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부적응적인 결과로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반응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서 인지변인, 대처방식, 사회적 기술과 지지 같은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예컨대, 아동의 낮은 자기유능감과 높은 인지오류성향은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작용을 하고(배주미, 2000), 성공경험에 대해 외적 귀인, 실패경험에 대해 내적 귀인할 경우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높다(김병성, 2002). 또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친구지지가 부족할 경우 아동의 문제행

동으로 이어진다(한미현, 1996).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은 부정적 대처방략과는 정적 상관, 긍정적인 대처방략과는 부적 상관이 있다(김수주, 2001; 김치영, 2003; 박진아, 2001; 정연우, 2001).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중요한 개인차 변인인 인지변인, 낮은 사회적 지지, 부정적 대처방략 변인을 설정하여 변인간의 상호관계와 문제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매개경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인은 개인, 가정, 학교 및 사회와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요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부모와 가정환경 스트레스인의 경우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은 가정환경과 관계가 있고, 가정환경의 지위보다는 과정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강두원, 1989). 둘째, 학교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초등학생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높은 수준의 학교 준비도를 요구받게 되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을 요구받아 이러한 경쟁적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반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경쟁적 요구를 쉽게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배주미, 2000). 셋째, 현대와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아동들은 마땅히 뛰어 놀 곳이 없어서 오락실이나 PC방과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의 유혹을 받고 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주위 환경, 차량통행이 많은 위험한 도로환경 등은 아

동들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스트레스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인에 아동이 나타내는 스트레스반응은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대상에 따라 피로감 호소, 얼굴 찡그리기, 손톱 물어뜯기, 자해행동, 집단에서의 이탈, 소리지르기, 한숨 쉬기, 울기와 같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내는 스트레스 반응, 타인의 행동에 대한 거부 및 방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 부모의 주의를 끌기 위한 의존적 행동, 말더듬,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하기와 같은 타인에게 나타내는 스트레스 반응, 책을 찢거나 장난감 부수기, 물건 빨기, 장난감으로 책상 두드리기와 같은 물건에게 나타내는 스트레스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아동은 피로감, 두통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 퇴행, 안절부절못함, 싸우기, 등교거부, 울기와 같은 행동적 반응, 공포, 불안, 슬픔, 우울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아동들은 동기결여, 집중의 어려움, 또래와의 불안정한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 중에서 발생빈도나 정도(severity)가 심하고 반응양상이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아동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성인과 매우 다르다(Chandler, 1985) 성인과는 달리 욕구좌절에 대한 내성이 낮고, 생활공간이 제한적이고,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해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부모나 가족에게 의존적인 등의 발달적 제한성이나 약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성인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강문희, 장연집, 정정옥, 1998).

흔히 문제행동이란 개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인 부적응적 반응을 말한다. 문제행동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한데, 아동의 행동이 사회규범에서 이탈되어 주

위의 성인들이 행동의 발생빈도나 정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고 판단하는 행동(Ross, 1974), 아동이 자신의 환경에 대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Kauffman, 1981), 현저하게 평균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행동(Lefrancois, 1988), 아동이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생겨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행동으로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 지도범위를 벗어나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정문자, 1988)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문제행동을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적응에 실패하였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으로 그 발생빈도나 표출정도가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은 사회적 위축, 신체 증상, 우울과 불안,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정신분열병, 비행, 공격행동, 성문제와 같은 9가지 문제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Achenbach & Edelbrock, 1983). 그리고 이러한 문제행동은 아동이 자신의 내적인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하는 과잉통제된 행동(overcontrolled behavior)이 원인이 되어 우울, 불안, 위축, 두려움, 신체화 증상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내재화문제(internalizing problems)와 자신의 갈등이나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는 과소통제된 행동(undercontrolled behavior)이 원인이 되어 공격성, 싸움, 비행과 같은 행동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외현화문제(externalizing problems)로 대별할 수 있다(Achenbach, 199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를 매개하는 변인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반응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서 스트레스 대처 자원과 성격변인, 인지변인, 부정적 대처방식, 낮은 사회적 지지 같은 스트레스를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매개변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 고려한 매개변인은 낮은 사회적 지지, 인지변인, 부정적 대처방식이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지원이나 도움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2). 초등학교 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부모, 교사, 친구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여 불안하고 긴장을 느낄 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고 대처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문제행동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질병과 부적 관계가 있고(Cohen & Williamson, 1991),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질병으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 스트레스인에 직면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Cohen & Wills, 1985), 친구 지지가 높은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이 낮고(한미현, 1996),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고 학교 스트레스를 완충시켜 학교불안과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정동화, 1995), 지각된 친구지지는 아동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친다(이명숙, 1994).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동의 경우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을 경우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의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낮은 자기유능감, 성공에 대한 외적 귀인 및 실패에 대한 내적 귀인, 인지오류와 같은 인지변인은 스트레스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문제행동 간의 매개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었다(김정희, 1987; 두금주, 2002; 배주미, 2000; 유병미, 2002; 이영호, 1993).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위와 같은 인지변인이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자기유능감(self-competency)이란 스스로 판단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Harter, 1985). 한편 자기(self)의 구성요인 중 자존감(self-esteem)은 자기(self)의 정서적 요인이며 자기도식(self-schema)에 근거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적 판단이다. 자존감과 자기도식은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자기도식이 자존감을 낮출 수도 있고, 낮은 자존감이 부정적인 자기도식을 유도할 수 있다(Cicchetti & Beeghly, 1991).

부정적인 자기도식은 우울과 같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도식의 형성에 아동의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판단인 지각된 자기유능감이 자기도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고(Cole, 1991; Harter, 1985), 자기유능감은 타인으로부터의 능력평가와 아동의 자기보고 우울증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Cole, Martin & Powers, 1997).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우울증상이 지각된 자기개념, 특히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인 자기유능감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귀인유형의 차이가 문제행동의 한 형태인 우울증과 함께 나타나거나 우울증을 예측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일반전집과 임상군 모두에서 높은 우울 증상을 지닌 아동들은 내적이고,

전반적이며, 안정적인 귀인양상을 나타내고(임양화, 1989; Gladstone & Kaslow, 1995), 비행청소년 집단과 일반청소년 집단 간의 성공경험에 대한 귀인유형의 비교 결과, 비행청소년 집단이 일반청소년 집단보다 성공경험에 대하여 외적 귀인을 많이 하고(최양숙, 1995), 자신의 성격에 대한 열등감이 높은 아동은 성격에 대한 열등감을 내적 귀인하여 열등감이 더 커지게 된다(정선양, 2002).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대하여 그 원인을 추론하는 귀인양식의 차이가 스트레스경험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성공적인 적응경험으로 이어지게도 하고 부정응적인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지오류(cognitive error)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비현실적인 처리를 통해 외부세계를 잘못 해석한 결과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신념, 가치, 태도 등을 의미하는데, 비합리적 인지책략, 부정적 사고의 오류, 역기능적 신념, 인지적 편향이라고도 한다(김정호, 2000).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개인화, 재앙화, 과잉일반화, 선택적 주의집중경향성 같은 인지오류는 우울증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우울한 아동과 우울하지 않은 아동은 부정적 사고오류의 현저한 차이가 있고(배주미, 2000), 인지오류가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에서 학업에 관련된 부적응을 많이 경험한다(김희영, 2003). 또한 인지오류는 여러 심리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나 심리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지오류를 찾아내고 교정하는 인지치료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Beck, 1987).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지오류가 아동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스트레스를 왜곡 또는 과장하여 해석하고 처리함으로써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하

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대처(coping)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강요한다고 평가되는 내외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Lazarus & Folkman, 1984)으로 정의되고 있고, 대처방략(coping strategies)이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인이 선택하거나 개발하여 실행한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

한편, 초등학생의 대처방략 척도개발 연구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조사한 후, 대처행동을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반응하는 적극적 대처방략,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보다 문제로부터 유발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거나 조절하는 소극적 대처방략, 스트레스 문제를 유보, 부정, 체념, 수용하거나 문제 자체를 생각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문제의 직접 해결을 회피하려는 회피적 대처방략,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공격적 반응인 공격적 대처방략, 문제 해결이나 정서 위안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 위안을 받으려고 반응하는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등 5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성인과 다른 아동의 다양한 대처방략을 설명하였다(민하영, 유안진, 1998).

아동이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선택한 대처방략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방략과 불안 및 위축 행동과는 부적 상관, 소극적 대처방략과 불안 및 위축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김수주, 2001, 정연우, 2001), 소극적 대처방략을 많이 사용하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방략을 적게 사용하는 아동은 내재화문제를 많이 보이고, 공격적 대처방략을 많이 사용하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방략을 적게 사용하는 아동은 외현화문제를 많이 보

인다(박진아, 2001).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공격적 대처방략과 같은 부정적 대처방략의 사용이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대처방략 중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대처방략의 유형을 밝히고 이러한 부정적인 대처방략의 매개효과와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관련성과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경상남도 소재 8개 지역 18개 초등학교 5~6학년 678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구성한 질문지 2개 세트를 실시하였다. 678명의 응답자 중에서 이중으로 체크하거나 누락시킨 문항수가 각각의 질문지 전체문항 수의 5% 이상이거나 신상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30명을 제외한 54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5학년은 남학생 160명, 여학생 160명이었고, 6학년은 남학생 120명, 여학생 108명씩이었다.

도구

본 연구에 필요한 총 7개의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7개 질문지의 총 문항수가 193문항으로 많아서 초등학생이 한번에 동시에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7개 질문지를 2개 세트로 만들어 2일에 걸쳐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질문지를 제시하는 순서가 아동의 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지의 순서

를 역균형화(counter balancing)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아래와 같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요인 분석 방법으로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고, 각 요인들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을 가정하여 직각회전 방식에 비해 높은 요인부하량은 더 높아지고, 낮은 요인부하량은 더 낮아지도록 요인을 회전시키는 사각회전 방식 중 프로맥스회전(promax rotation, Kappa=4)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

아동용 스트레스척도

한미현(1996)이 제작한 아동용 스트레스척도 42문항 중에서 현대의 아동의 생활환경과 거리가 있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한 2문항을 제외한 후 나머지 40문항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척도는 0~3의 4점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요인구조를 통해 스트레스 하위영역을 구성하기 위해 40문항을 요인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요인 형태계수가 2개 이상의 요인들간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3개 문항을 제외한 37문항을 다시 요인분석하여 5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5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46.56%를 설명하고, 요인 1은 교우관계 스트레스로 24.67%, 요인 2는 학업 스트레스로 7.08%, 요인 3은 가정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5.54%, 요인 4는 학교와 주변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5.20%, 요인 5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로 4.07%를 설명하였다. 전체 37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91,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 1은 .85, 요인 2는 .85, 요인 3은 .86, 요인 4는 .74, 요인 5는 .72이었다.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행

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나 교사에 의해 잘 관찰되어지지 않는 정서와 관련된 내재화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문제행동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Youth Self Report, YSR; Achenbach, 1991)를 사용하였다. Achenbach(1991)가 11~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Youth Self Report, YSR)를 오경자 등(2001)이 표준화한 K-YSR을 사용하였다. K-YSR은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중 내재화문제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내재화문제 척도는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과 불안 등 3개 척도 3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0~2의 3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 합치도는 .71~.85, 1개월 간격으로 실시한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남자 평균 .78, 여자 평균 .37이었다.

사회적 지지 지각척도

한미현(1996)의 사회적 지지 지각척도 24문항을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 인정, 관심 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는 0~3의 4점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4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낮은 3문항을 제외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시 요인 분석한 결과, 최종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3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64.64%를 설명하고, 요인 1은 지각된 가족지지로 41.45%, 요인 2는 지각된 친구지지로 13.77%, 요인 3은 지각된 교사지지로 9.42%를 설명하였다. 전체 21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3,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 1은 .91, 요인 2는 .90, 요인 3은 .93이었다.

아동용 스트레스 대처척도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취하는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척도를 이효정(2003)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20문항, 4점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4개 문항은 요인 형태계수가 요인간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항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의 대처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된 후 같은 방법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최종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추출된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9.36%를 설명하고, 요인 1은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묶여진 공격적 대처로 24.98%, 요인 2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방법을 추구한다는 등의 문항이 포함된 적극적 대처로 18.16%, 요인 3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묶여진 도움요청 요인으로 8.52%, 요인 4는 스트레스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회피하는 소극회피적 대처로 7.70%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4요인의 문항내용을 검토해보면 요인 1과 4는 부정적 대처, 요인 2와 3은 긍정적 대처로 대별할 수 있다. 전체 16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9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 1은 .83, 요인 2는 .82, 요인 3은 .66, 요인 4는 .55이었다.

아동용 자기지각검사

초등학생의 자기유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Harter(1985)의 아동용 자기지각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를 배주미(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아동의 유능감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아동에게 중요하게 지각되는 생활영역인 학업, 사회, 운동, 신체, 행동 등 5개 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self-worth) 영역 등, 총 6개 영역, 3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아동의 실제 능력이 아니라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이고 각 문항에 대해 왼쪽과 오른쪽에 묘사되어 있는 진술문을 읽어보고 아동 자신에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선택한 후, 다시 그 내용이 자신에게 약간 그런지 또는 매우 그런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36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2개 문항은 요인 형태계수가 큰 차이가 없어서 제외한 후 다시 요인분석 하여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추출된 4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44.64%를 설명하고, 요인 1은 운동활동에 대한 자신감으로 26.72%, 요인 2는 학업과 품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8.24%, 요인 3은 외모와 행동방식에 대한 자신감으로 5.10%, 요인 4는 교우관계 자신감으로 4.57%이었다. 전체 34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고, 요인 1은 .83, 요인 2는 .78, 요인 3은 .81, 요인 4는 .82 이었다.

아동용 부정적 인지오류 질문지

Leitenberg 등(1986)의 아동용 부정적 인지오류 질문지(Children's Negative Cognitive Error Questionnaire: CNCQ)를 배주미(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Beck(1967)의 이론에 근거하여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부정적 결과 예측), 사건의 결과를 매우 재앙적인 것으로 보고(재앙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주로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며(개인화), 전반적 상황속에서 특히 사건의 부정적인 특징에 대해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경향

(선택적 주의), 부정적인 결과를 과잉일반화 하는 특성(과잉 일반화) 등의 인지오류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검사는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검자는 질문지에 제시된 상황을 읽고 제시된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4점 평정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지오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24개 문항은 사회와 대인관계 영역, 운동 관련 영역, 학업과 성취관련 영역 등, 3가지 내용 영역에 대한 인지왜곡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해서 계산한 24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9이었다.

귀인 질문지

Bell과 McCallum(1995)의 학생용 사회적 귀인척도(Student Social Attribution Scale: SSAS)를 근거로 서미정(1999)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수검자가 어떤 상황에 대한 결과를 통제 소재 차원에 따라 기질, 능력, 노력과 같은 내적 요소에 귀인하는지, 과제 난이도, 운 등의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지를 측정하는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이 내적 요소에 응답하면 1점, 외적 요소에 응답하면 0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귀인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8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5개의 요인은 학업, 운동, 교우관계, 운동 등 4영역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5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54.02%를 설명하고, 요인 1은 학업과 운동의 성공귀인으로 21.22%, 요인 2는 교우관계 성공귀인으로 13.38%, 요인 3은 운동의 실패귀인으로 7.41%, 요인 4는 학업의 실패귀인으로 6.14%, 요인 5는 교우관계 실패귀인으로 5.88%를 설명하였다. 전체 18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77,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 1은 .73, 요인 2는 .68, 요인 3은 .70, 요인 4는 .50, 요인 5는 .52이었다.

자료분석

자료는 윈도우즈용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투입된 변인간의 상관과 내재화문제를 설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AMOS 4.01 (Arbuckle, 1999)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의 매개경로에 관하여 설정한 6개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와 모형의 오류를 비교하는 적합도 지수인 CFI (Comparative Fit Index), 표본의 크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의 오류가 작고, 모형이 간명할수록 그 값이 증가하는 NNFI(Non-Normed Fit Index),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적합도 지수로 추천되고 이용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 4가지 지수에 근거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χ^2 값이 작을수록, CFI가 0.9 이상, NNFI는 값이 높을수록 좋은 모형인데 대략 0.9이상이면 좋은 모형이고, RMSEA는 0과 1 사이이며 0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며 0.05 이하일 때 좋은 모형이라는 기준(홍세희, 2000)에 근거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변인간의 상관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여러 변인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모형을 검증하

기 위해 먼저 사회적 지지, 대처방략, 지각된 자기유능감, 인지오류, 귀인양식 변인, 내재화문제 간의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고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스트레스는 유능감($r(442)=-.34, p<.01$), 사회적 지지($r(498)=-.33, p<.01$), 성공에 대한 내적 귀인($r(518)=-.23, p<.01$)과 부적 상관, 내재화문제($r(499)=.63, p<.01$), 인지오류($r(513)=.42, p<.01$), 공격적 대처($r(518)=.36, p<.01$), 소극적 대처($r(522)=.35, p<.01$), 성공에 대한 외적 귀인($r(518)=.23, p<.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자기자신을 유능하게 지각하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하며 성공 경험에 대해 내적 귀인 할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공격적 대처방략이나 소극적 대처방략을 사용하고 부정적 인지오류의 경향성이 높고 성공 경험에 대하여 외적 귀인 할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내재화문제($r=.63, p<.01$)와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아동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 때 내재화문제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재화문제는 인지오류($r(512)=.46, p<.01$), 소극적 대처($r(520)=.44, p<.01$), 공격적 대처($r(517)=.31, p<.01$), 성공에 대한 외적 귀인($r(515)=.26, p<.01$)과 정적상관, 유능감($r(442)=-.38, p<.01$), 사회적 지지($r(497)=-.28, p<.01$), 성공 경험에 대한 내적 귀인($r(515)=-.26, p<.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고, 공격적, 소극적 대처행동과 같은 부정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인지오류의 성향이 강하고 성공경험을 운이나 외부로 돌리는 외적 귀인을 할수록 내재화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표 1.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를 매개하는 변인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34**											
3	.36**	-.18**										
4	.02	.24**	.14**									
5	.04	.20**	.06	.45**								
6	.35**	-.14**	.31**	.18**	.14**							
7	-.33**	.58**	-.08	.37**	.30**	-.04						
8	.42**	-.41**	.37**	-.00	-.04	.27**	-.29**					
9	-.23**	.57**	-.14**	.17**	.14**	-.05	.42**	-.41**				
10	-.12**	.09	-.29**	.16**	.01	-.08	.11*	-.17**	.23**			
11	.23**	-.57**	.14**	-.17**	-.14**	.05	-.42**	.41**	-1.0**	-.23**		
12	.12**	-.09	.29**	-.16**	-.01	.08	-.11*	.17**	-.23**	-1.0**	.23**	
13	.63**	-.38**	.31**	.03	.03	.44**	-.28**	.46**	-.26**	-.08	.26**	.08

* $p < .05$. ** $p < .01$.

주. 1. 스트레스 2. 유능감 3. 공격적 대처방략 4. 적극적 대처방략 5. 도움요구 대처방략 6. 소극적 대처방략 7. 지각된 사회적 지지 8. 인지오류 9. 성공에 대한 내적 귀인 10. 실패에 대한 내적 귀인 11. 성공에 대한 외적 귀인 12. 실패에 대한 외적 귀인 13. 내재화문제

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자기유능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고, 성공경험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할수록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회귀분석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각된 자기유능감, 부

정적 인지오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내적 및 외적 귀인유형, 대처방략 중에서 초등학생의 내재화문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내재화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스트레스($F=240.571$, $p<.001$)로 설명변량은 38.9%이었고, 인지오류, 소극적

표 2.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스트레스	유능감	공격적 대처방략	적극적 대처방략	도움요구 대처방략	소극적 대처방략	사회적 지지	인지 오류	성공 내적귀인	실패 내적귀인	성공 외적귀인	실패 외적귀인	내재화 문제
M	19.47	91.48	3.87	4.54	1.12	1.46	33.89	19.44	6.08	7.05	2.92	1.95	11.43
SD	14.30	13.74	3.56	3.47	1.63	1.78	33.89	11.45	2.49	1.97	2.49	1.97	8.06
N	523	465	543	541	543	547	522	538	542	540	542	540	521

표 3. 내재화문제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인	표준화 회귀계수(β)	t	R ²	ΔR^2	F
1	스트레스	.624	15.510***	.389	.389	240.571***
2	스트레스	.506	11.701***	.442	.053	149.153***
	인지오류	.258	5.972***			
3	스트레스	.444	10.259***	.481	.039	116.263***
	인지오류	.226	5.367***			
	소극적 대처	.215	5.350***			
4	스트레스	.418	9.592***	.495	.014	91.914***
	인지오류	.180	4.085***			
	소극적 대처	.216	5.455***			
	유능감	-.133	-3.204***			

*** $p < .001$.

대처, 유능감 변인이 각각 1~5% 정도의 설명변량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4가지 변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49.5%였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와 표 1에서 지적된 상관패턴, 즉 스트레스와 인지오류, 소극적 대처는 내재화문제와 정적 상관, 유능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할 때, 아동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 인지오류 경향이 높고 소극적 대처방략을 많이 사용하고, 자기자신의 능력에 대한 유능감 지각이 낮을수록 내재화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초등학생의 내재화문제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수로 지적된 인지오류, 낮은 자기유능감, 소극적 대처방략 등의 변인들은 스트레스가 내재화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내재화문제와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지만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의미있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성공경험에 대한 내적, 외적 귀인 등

의 변인은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과정을 매개하기보다는 스트레스 경험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수준을 낮추거나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충시켜 개인의 적응을 돕는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관과 회귀분석에서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와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내재화문제에 관한 모형 검증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및 다른 변인과의 상관과 내재화문제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소극적 대처와 인지변인을 투입하여 여러 가지 매개경로를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였고, 적합도 검증을 통하여 보다 나은 모형으로의 수정을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은 표 4와 같다.

6개 모형의 적합도를 AMOS 프로그램으로 처

표 4. 내재화 문제에 관하여 설정한 모형설명

검증모형	모형에 관한 설명
모형 I	스트레스, 소극적 대처, 인지변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한 단순효과 모형
모형 II	스트레스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 대한 소극적 대처방략의 부분 매개와 인지변인의 직접효과를 결합한 모형
모형 III	스트레스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인지변인의 부분 매개와 소극적 대처방략의 직접효과를 결합한 모형
모형 IV	스트레스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 대한 소극적 대처방략과 인지변인의 완전매개를 고려한 완전매개모형
모형 V	모형 IV에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로 가는 직접경로를 더해준 소극적 대처방략과 인지변인의 부분 매개모형
모형 VI	모형 V에 아동의 부정적 인지변인이 소극적 대처방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하나 더 추가한 수정된 부분 매개모형

리한 결과는 표 5와 같고 설정한 모형을 도식화한 아래의 그림에서 화살표 위에 써 있는 수치는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이며 측정변인은 사각형으로 이론변인은 타원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중, 모형 I은 모형 II와 모형III, 모형IV는 모형 V와 모형VI과 등지관계(nested relationship)이기 때문에 두 세트 내 모

형의 비교는 χ^2 와 비교 부합치 적합도 지수인 CFI를 통해 모형의 우수성을 판정하였으며 두 세트 간 모형의 비교는 간명성을 고려한 적합도 지수인 NNFI와 RMSEA를 통해 비교검증 하였다.

등지관계인 모형 I ~ III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모형 I에 각각 스트레스에서 소극적 대처방략으로 가는 경로를 추가(모형 II)하고, 스트레스에서 인지변인으로 가는 경로를 추가(모형 III)

표 5. 내재화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6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N=548)

검증모형	df	χ^2	p	CFI	NNFI	RMSEA
모형 I	5	206.868	.000	.955	.866	.272
모형 II	4	136.554	.000	.971	.890	.246
모형 III	4	83.064	.000	.983	.934	.190
모형 IV	4	24.756	.000	.995	.983	.097
모형 V	3	9.749	.021	.999	.993	.064
모형 VI	2	3.798	.150	1.000	.997	.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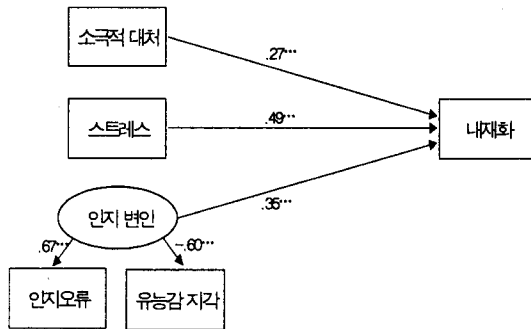


그림 1. 내재화문제 모형 I : 스트레스, 소극적 대처 및 인지변인의 단순효과모형(**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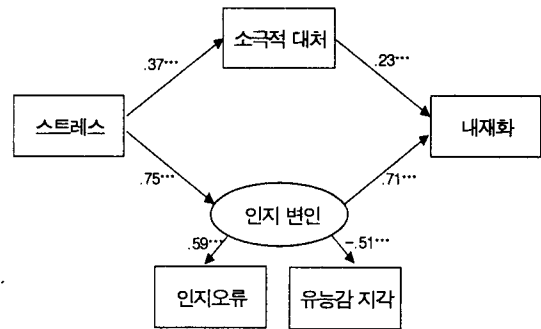


그림 4. 내재화문제 모형 IV: 소극적 대처와 인지변인의 완전매개모형(**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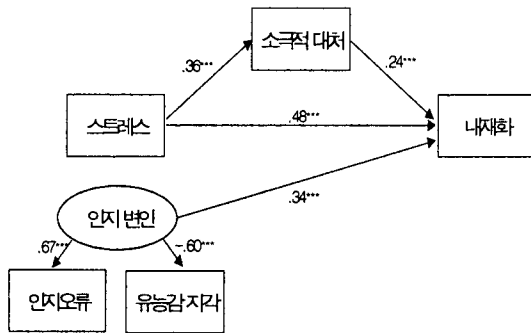


그림 2. 내재화문제 모형 II: 소극적 대처의 부분 매개와 인지변인의 단순효과를 결합한 모형(**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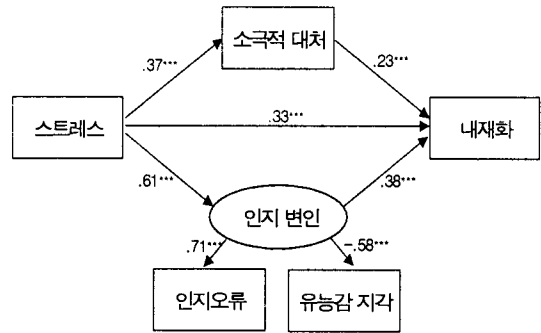


그림 5. 내재화문제 모형 V: 소극적 대처와 인지변인의 부분 매개모형(**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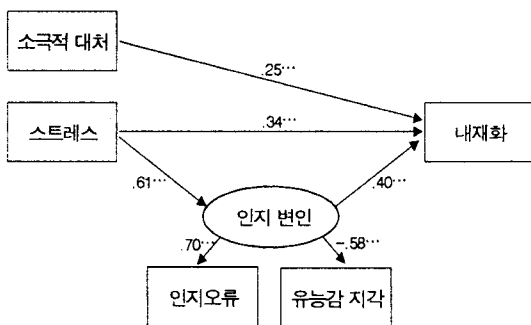


그림 3. 내재화문제 모형 III: 인지변인의 부분 매개와 소극적 대처의 단순효과를 결합한 모형(**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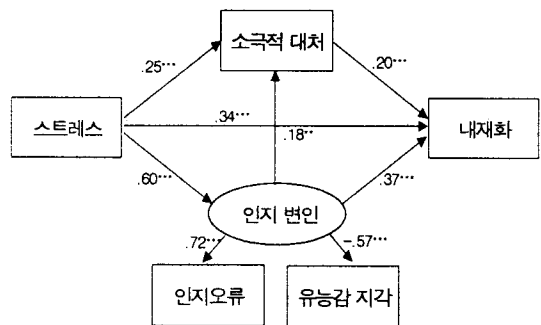


그림 6. 내재화문제 모형 VI: 소극적 대처와 인지변인의 수정된 부분 매개모형(** $p < .01$, *** $p < .001$)

하는 과정에서 자유도가 1 감소하였지만 χ^2 의 값이 유의도 .05수준에서의 χ^2 값의 임계치인 3.84를 훨씬 초과한 보다 높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CFI 값이 각각 .016, .028이 개선되어 모형 I보다 모형 II와 모형 III이 보다 우수한 모형이며, 모형 III이 이들 세 모형 중에서 가장 우수한 모형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또 다른 등지관계인 모형 IV, V, VI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모형 V는 모형 IV에서 스트레스에서 내재화문제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자유도가 1 감소하였지만 χ^2 의 값이 유의도 .05수준에서의 χ^2 값의 임계치인 3.84를 초과한 15.007(24.756-9.749)의 개선을 보였으며, CFI 값이 .004가 개선되어 모형 IV보다 모형 V가 보다 우수한 모형이며, 모형 VI은 모형 V에서 인지변인에서 소극적 대처방략으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자유도 1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χ^2 의 값이 5.951(9.749-3.798)의 개선을 보였으며, CFI 값이 .001이 개선되어 모형 V보다 모형 VI이 보다 우수한 모형이며, 모형 VI이 이들 세 모형 중에서 가장 우수한 모형임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모형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NNFI는 0.9이상이면 좋은 모형이고, RMSEA는 0.05 이하일 때 좋은 모형이라는 기준(홍세희, 2000)에 근거할 때, 모형 I~III보다 모형 IV~VI이 보다 우수한 모형이며 그 중 모형 VI이 가장 우수한 모형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인지 변인, 소극적 대처방략의 직접효과나 매개변인으로서 인지변인과 소극적 대처방략 중 어느 하나의 변인만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는 것 보다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인지변인과 소극적 대처방략을 매개변인으로 함께 고려하고, 이때 인지변인과 소극적 대처방략은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에 대하여 완전매개변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부분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수용한 모형 VI의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는 소극적 대처방략의 매개를 통해 내재화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스트레스는 인지오류와 낮은 자기유능감의 인지변인의 매개를 통해 내재화문제로 이어진다. 셋째, 스트레스가 소극적 대처방략과 부정적 인지변인에 의해 내재화문제로 매개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내재화문제로 이어진다. 넷째,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인지오류와 낮은 자기유능감의 인지변인이 활성화되면 소극적 대처방략을 사용하는 경향성을 높게 되고 그 결과 내재화문제를 일으킨다.

논 의

초등학생에게 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유능감지각, 인지오류, 내·외적 귀인유형, 대처방략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내재화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스트레스, 인지오류, 소극적 대처방략, 유능감지각이었고, 이 4가지 변인의 설명변량은 49.5%, 그 중 스트레스에 의한 설명변량이 38.9%로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초등학생들이 나타내는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른 변인보다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개인화, 재앙화, 과잉일반화, 선택적 주의집중과 같은 인지오류,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각한 유능감, 스트레스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회피하는 소극적 대처가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대처방략인 스트

레스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회피하는 소극적 대처가 여러 대처방략의 유형 중 내재화문제를 설명하는데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긍정적 대처방략의 내재화문제에 대한 영향력과 비교해 설명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적극적 대처와 도움요구 대처와 같은 긍정적 대처방략이 스트레스 지각을 완충시키는 작용이 있거나 긍정적 대처방략의 사용 자체가 내재화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재화문제의 유발경향을 저하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대처방략과 내재화문제 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김영선, 2003; 서영미, 2001; 정동화, 1995; 한미현, 1996)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위사람으로부터 도움, 인정, 관심을 받는다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상대적으로 내재화문제를 매우 낮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내재화문제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내재화문제와 관계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투입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는 단계적 회귀분석의 방법을 실시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개별적으로 연구하면 낮은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문제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변인과 동시에 연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내적, 외적 귀인 유형은 내재화문제를 의미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아동의 내적 귀인은 우울증상과 영향을 미친다는 Gladstone과

Kaslow(1995), 임양화(1989)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 내적, 외적 귀인과 우울간에 상관 이 낮다는 연구결과(서은란, 2001)와는 일치한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아동의 귀인 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귀인차원을 포함시켜 내재화문제와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의미하는 인지오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낮은 수준의 자기유능감, 스트레스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회피하는 소극적 대처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다른 어떤 변인보다 초등학생의 내재화문제를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내재화문제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오류, 유능감지각과 같은 인지변인, 소극적 대처 변인의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간의 매개효과에 관한 여러 모형 중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 VI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간의 관계에서 인지오류, 낮은 자기유능감의 인지변인은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스트레스는 인지오류에 정적 영향, 유능감지각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지오류와 낮은 자기유능감과 같은 인지변인은 초등학생의 내재화문제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즉 초등학생의 이러한 인지변인은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간의 관계에서 매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있어 부정적 사건에 대한 개인화, 재앙화, 과잉일반화, 선택적 주의집중과 같은 부정적 인지오류와 학업, 신체,

외모, 대인관계 등에 대한 지각된 낮은 유능감을 통해서 사회적 위축, 신체 증상,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문제를 예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종모형으로 선택한 모형 VI에서 지각된 것처럼 지각된 스트레스 자체가 내재화문제에 강력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아동의 부정적 인지변인에 의한 완전매개모형보다는 스트레스의 내재화문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같이 고려한 부분 매개모형이 보다 적절한 모형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초등학생의 인지오류, 유능감 지각이라는 인지변인의 매개효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최미례, 이인혜, 2003),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사건과 우울증상 간의 관계에서 유능감 지각의 종단적 매개효과(Tram & Cole, 2000),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인지오류와 유능감 지각의 부분 매개효과(배주미, 2000)를 밝힌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반면, 본 연구는 우울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내재화문제와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대처방략 중에서 소극적 대처방략은 매개효과가 있다. 즉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해 아동이 소극적 대처방략을 사용할 경우 내재화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아동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소극적으로 회피할 경우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과 같은 내재화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정적 인지변인의 매개효과에서도 지적

한 것처럼 스트레스 자체가 내재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소극적 대처방략에 의한 완전매개모형보다는 내재화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부분 매개모형이 보다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초등학생의 소극적 대처방략의 매개효과는 초등학교 6학년이 스트레스에 대해 일방적인 공상을 하거나 비현실적인 희망을 갖는 등의 대처방략을 사용할 경우 내재화문제와 관련성이 높다는 김치영(2003)의 연구결과와 초등학교 4, 6학년생을 대상으로 공격적, 적극적, 도움요구, 소극적 대처방략 중에서 소극적 대처방략이 내재화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박진아(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앞서 언급한 인지변인과 소극적 대처방략이 매개작용을 하지만, 여전히 스트레스 자체가 내재화문제를 유발시키는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스트레스를 내재화문제로 이어지게 하는 이러한 매개변인과 함께 스트레스 자체가 내재화문제를 유발시키는 경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설명력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간의 관계에서 인지변인과 소극적 대처방략 각각이 매개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모형 VI에서 인지변인에서 소극적 대처방략으로 가는 경로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초등학생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인지적 오류를 경험하고 자기유능감이 낮을 경우 이러한 인지변인으로 인해 소극적 대처방략을 사용하게 되고,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간의 관계에서 인지변인과 소극적 대처방략에 의한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지변인이 활성화되어 소극적 대처방략을 사용할

경우에도 내재화문제를 나타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내재화문제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닌 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현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 위축, 우울, 불안, 신체증상과 같은 내재화문제를 나타내는 아동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인 스트레스 생활사상이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스트레스 사상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인지처리 하는지, 학업, 운동, 대인관계 등에서 유능감을 지각하고 있는지 등의 인지변인을 탐색하는 상담이나 생활지도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행동 간을 매개하는 대처방략인 소극적 대처방략을 교정하고 긍정적 대처방략을 훈련하는 상담이나 생활지도가 필요하고, 이때 소극적 대처방략 사용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 인지변인을 함께 교정하는 인지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초등학교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진 사회적 지지, 인지변인, 대처방략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여,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변인을 통해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즉 단일 매개변인보다는 여러 매개변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매개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둘 이상의 매개변수를 도입할 수 있고 복잡한 이론적 구조를 가진 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구축한 모형을 검증할 수 있었고 모형을 이론적 근거와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값을

가지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다변량분석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계기법을 적용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개선방향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에 관한 매개변인으로서 인지변인과 부정적 대처방략을 고려하였지만, 자기유능감, 인지오류, 귀인유형과 같은 인지변인과 공격적 대처방략이라는 변인들이 독립변인인 지각된 스트레스 자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기에 이들 변인들에 의한 스트레스 지각의 차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연구방법상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인들에 의한 보다 정확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 변인들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배제하는 연구방법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초등학교생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5~6학년은 발달적 측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신체적, 인지적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성차를 고려하고 저학년을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할 때 스트레스, 인지변인,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각 변인의 전체점수를 이용해서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만 투입된 변인의 하위요인 중 어느 요인이 투입된 변인을 대표하는 지와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구조를 바탕으로 투입할 각각의 변인들을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AMOS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보다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편의상 내재화문제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연구하였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문제의 하위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두원 (1989). 가정환경, 학업성취,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문희, 장연집, 정정옥 (1998). 아동정신건강. 서울: 정민사.
- 김병성 (2002). 중학생의 성공·실패 지각에 따른 귀인유형과 스트레스수준 및 대처양식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주 (2001).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선 (2003). 초등학생이 경험한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2000).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기 및 인지.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6(1), 1-26.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치영 (2003).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춘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 (2003). 초등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금주 (2002).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유안진 (1998). 일상적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박진아 (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18개월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미정 (1999).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미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란 (2001). 청소년의 우울과 귀인유형 및 비행과의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유병미 (2002). 초등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수준에

- 다른 불안과 스트레스의 차이.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 (1994). 기질 및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 종단적 패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효정 (2003).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 학생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양화 (1989). 우울한 아동의 귀인유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화 (1995).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문자 (1988). 유아의 행동문제. 제 10차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
- 정선양 (2002). 초등학교 4, 6학년 아동의 열등감과 귀인성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우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래,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양숙 (1995).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유능성지각 및 귀인양식에 관한 비교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rbuckle, J. L. (1999). *Amos 4.01*. Chicago: Smallwaters Corp.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 Beck, A. T. (1987).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 5-38.
- Bell, S. M., & McCallum, R. S. (1995). Development of a scale measuring social attributions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social functioning. *School Psychology Review*, 24, 271-286.
- Chandler, L. A. (1985). *Assessing stress in children*. New York: Praeger.
- Cicchetti, D. & Beeghly, M. (1991). *The self in transition: Infancy to Childhood*.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hen, S. & Williamson, G. M. (1991). Stress and infectious disease in humans. *Psychological Bulletin*, 109, 5-2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hen, S. & Hoberman, H. M. (1982).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n life change Stress*:

- maximizing the prediction of health outcome, unpublished: University of Oregon.
- Cole, D. A. (1991). Preliminary support for a competency-based model of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181-190.
- Cole, D. A., Martin, J. M., & Powers, B. (1997). A competency-based model of child depression: A longitudinal study of peer, parent, teacher, and self-evalua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 505-514.
- Compas, B. E. (1987). Coping and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ompas, B. E.,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 (1982).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119-136.
- Gladstone, T. R. G., & Kaslow, N. J. (1995). Depression and attribu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3, 597-606.
- Harter, S. (1985).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University of Denver.
- Holahan, C. J., & Moos, R. H. (1987). Risk, resistan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analysis with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3-13.
- Kauffman, J. M. (1981).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behavior disorder*. Ohio: Colubu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francois, G. R. (1988). *Psychology for teaching: A bear never faces the front*. Belmont: Wadsworth.
- Leitenberg, J., Yost, L. W., & Carroll-Wilson, M. (1986). Negative cognitive errors in children: Questionnaire development, normative data, and comparisons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self-report symptoms of depression, low self-esteem and evaluation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ounseling Psychology*, 54, 528-536.
- Ross, A. O. (1974). *Psychological disorder of children: A behavioral approach to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McGraw-Hill.
- Rowlison, R. T., & Felner, R. D. (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32-444.
- Tram, J. M., & Cole D. A. (2000).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the relation between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Mediator or moderat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753-760.
- 원 고 접 수 일 : 2004. 9. 17.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1. 22.
게재결정일 : 2004. 11. 25.

A Test of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Variables and Negative Coping Strategies in the Rel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tress and Internalizing Problems

Tai-Hui Han

Sang-Hwang Hong

Gojeon Elementary School

Dept of Education Chinju Natinal Uin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variables that mediate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tress and internalizing problems and find out the mediating pathways of theses variables. For these purposes the correlations between cognitive variables,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y variables which is known to moderate or mediate between stress and internalizing problems were computed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Sev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hypothesized and tested. The 5th,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completed questionnaire of stress, attribution style, perceived self-competency, cognitive error, and behavior problems. 548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Result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stress, cognitive error, and passive coping explained 49.5% variance of internalizing problems. Based on this result, models that assume cognitive variable and passive coping as the mediating variables were hypothesized and the indices for evaluating the fi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were compared. In results, negative cognitive variable and passive coping were the partial mediator in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internalizing problems and the stress children experience decreases cognitive error and the level of perceived competency. These results suggest when child complains internalizing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xiety, fear, somatic symptom, negative cognitive variable and coping strategy should be explored and educative actions that remedy the negative cognitive variable and coping strategy are needed.

Keywords : elementary school children, stress, internalizing problems, cognitive variables, coping strategy.